

조선 후기 유언비어 사건의 추이와 성격

정감록(鄭鑑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고성훈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 조선 후기 정치사회사 전공

kohsh@mest.go.kr

- I. 머리말
- II. 유언비어 사건의 유형과 추이
- III. 조정의 민심 수습책과 유언비어의 정치·사회적 기능
- IV. 맺음말

I. 머리말

대규모 전란을 겪은 조선 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쟁 또는 봉당정치의 확대, 이양법 확산으로 말미암은 농민층 분화, 화폐경제의 발달, 신분제의 이완, 실학과 민중사상의 확산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 질서를 찾으려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혼란을 수반하였다.

정치·사회·경제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 정치투쟁이 고착화되는가 하면, 민중의 저항도 더욱 활발하였다. 이러한 정치투쟁과 민중운동에는 유언비어가 수반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유언비어는 ‘어떠한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역사상 어느 시기에나 유언비어는 있었고,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유언비어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시기 유언비어는 대개 하나의 사건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때 유언비어는 ‘와언(訛言)’이나 ‘요언(妖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익명서(匿名書), 즉 괘서(掛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유언비어는 ‘거사모의(學事謀議)’ 사건으로 이어져서 ‘모반’ 또는 ‘역모’로 자리매김하기도 하였다.

둘째,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는 흔히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을 이용하여 민중을 선동하고 민심을 동요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대표적 ‘민중사상’인 정감록은 왕조교체와 이상향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선 후기에 들어와 민중에게 급속히 퍼져갔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 유언비어 사건을 추동하는 강력한 틀로 작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유언비어의 추이와 성격 파악을 목적으로 하되, 정감록과 관련된 사건들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17-18세기를 중심으로 유언비어 관련 사건의 추이를 파악하려 한다. 이때 사건 추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편의상 와언, 요언, 괘서, ‘거사모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특히 정감록과 유언비어의 관련 부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정감록의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언비어에 이용되는지를 관련 사건을 통해 파악하려 한다. 끝으로, 조정에서는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또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 유언비어의 정치·사회적 기능도 함께 파악할 것이다.

II. 유언비어 사건의 유형과 추이

1. 와언, 요언

유언비어는 단지 ‘뜬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라는 속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과장을 미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대 전란을 겪고 난 후라 유언비어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유언비어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이득을 보거나 상대방을 무함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 대 개인 차원의 유언비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사료에 잘 남아 있지 않기도 하지만 사회적 과급력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국가적으로 과장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때의 유언비어는 주로 ‘와언’이나 ‘요언’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와언과 요언은 모두 유언비어의 다른 표현이다. 다만 와언은 단순 유언비어인 반면에, 요언은 생불(生佛)이나 정감록과 같은 ‘민간 신앙’이나 ‘민중사상’의 색채가 있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 유형별로 와언과 요언 사례들의 추이와 특징 등을 파악해본다.

첫째, 유언비어에 의한 공격 대상과 관련된 것이다. 유언비어는 흔히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을 비난하거나 체제를 비난 또는 부정하는 내용을 퍼뜨리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숙종 때 한글로 노랫말을 지어 도성 안의 초부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가사는 주로 조정과 시대를 비난하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관서 기녀들의 노래가 되어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다.¹⁾ 이에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이 노래를 퍼뜨린

1) 『숙종실록』 18년 11월 16일(신유).

자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노래를 퍼뜨린 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정에서도 노래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유언비어 유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언비어가 어느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 자체로도 조정으로부터 민심을 이반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듯하다.

영조 때 무신란이 일어나기 전 해 겨울 서울에 와언이 퍼졌다. 이때는 과거 사건으로 조정 안팎이 동요하고 있을 때이다.

와언이 날로 일어나 청과동에서는 ‘집채 같은 바위를 어두운 밤에 굴러 옮겼다’라고 하고, 남산에서는 ‘소나무 수백 그루를 뽑아서 산 아래 쌓아 두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인심이 소요하여 흙더미가 무너지는 형세에 놓여 있으니, 흉악한 무리들 소행이 이와 같은데도 임금은 구중궁궐에 깊이 거처하면서 이를 깨닫지 못한다²⁾

위의 기사는 와언이 민간에 나돌고 있음에도 조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비판한 사론(史論)에서 따온 것이다. 이때는 전라도와 서울에서 잇따라 과거 사건이 발생하여 조정에서 범인 수사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비어가 무신란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해도 무신란의 전조로 작용한 듯하다.

둘째, 조선 후기에 와언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유언비어이다. 그 내용은 주로 외적이 침입할 것이라거나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전란에 대한 위기감을 조장한다.

숙종 즉위년(1674) 9월 4일 밤에 서울 안팎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또는 ‘왜적이 쳐들어온다’라는 유언비어가 갑자기 퍼졌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집집마다 짐을 지고 나갔다. 소요는 이튿날 아침에 진정되었다. 원래 이 유언비어는 황해도 장연(長連) 등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왜선이 이미 해안에 정박하여 해서의 여러 고을이 여리(閭里)를 모두 비우고 산골짜기에 도망하여 숨은 것이 며칠 되었다³⁾”라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에서부터 삼남에 이르기까지 소동이 일어났다. 이로 보아 유언비어의 파급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한가를

2) 『영조실록』 3년 12월 16일(정유).

3) 『숙종실록』 즉위년 9월 4일(을축).

알 수 있다.

영조 무신란 직전 서울에서도 께서 사건이 일어나서 조정이 긴장을 하고, 민심이 동요하고 있을 때 사대부의 동향과 민심을 알 수 있는 와언이 일어났다. 일종의 ‘난리설’ 관련 유언비어이다.

이때 서울에는 근거 없는 풍문이 날로 흥흥하여 사람들이 모두 짐을 꾸려 놓고 있어 아침과 저녁 사이에도 신변을 보장할 수 없는 듯하였고, 남산 이랫마을에 사는 가족을 이끌고 도망가는 土夫들이 많아서 나루터에 길이 막혔으니,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함은 끝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⁴⁾

이와 같이 근거 없는 풍문, 즉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서울의 민심은 매우 동요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산 아래 사는 사부(土夫)’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여 난리를 피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남산 아래에는 ‘나라를 원망하는 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주류에서 배제된 비판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모반을 준비하는 세력이 이들 중 일부와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조 11년(1787)에 경기도와 충청도에 와언이 급속히 퍼져서 인심이 동요하였다.

이때 경기도와 충청도에 와언이 갑자기 퍼졌는데 하루 만에 전해지며 인심이 동요하였다. 혹은 ‘오랑캐의 기병이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해적이 가까운 곳에 정박하였다’라고 하였다. 주민들이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애는 끌고 도망가서 마을이 거의 비게 되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되었다.⁵⁾

이 사건은 경기도 수원·평택 경계에서 유언비어가 퍼지자,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삼시간에 충청도 온양·아산·천안·직산으로 퍼져 나갔다. 충청도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의 조서에 따르면, 이 일로 평택현감 이형필(李衡弼)이란 자는 겁을 집어먹고 이노(吏奴)들로 부대를 만들 때까지 했다고 한다. 인심을 진정시켜야 할 수령이 오히려 인심을 경동시킨 것이다. 이 일은 곧 소란이 가리앉았고 물의를 빚은 평택현감을 탄핵하는

4) 『영조실록』 4년 3월 14일(갑자).

5) 『정조실록』 11년 4월 19일(병진).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전란을 체험한 조선 후기의 시대상으로 말미암아 ‘난리살’이나 ‘외적침입살’과 같은 유언비어로 인한 민심의 동요가 매우 컸다. 한 지역에 와언이 퍼지면 이 소문이 인근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셋째, 생불(生佛)이나 미륵불과 관련된 유언비어 사건이 유행하였다. 숙종 2년(1676) 11월에 생불로 불리던 승려 처경(處瓊)이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임을 자처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이 일어났다.⁶⁾ 25세의 젊은 승려 처경은 곡기를 끊은 채 경문을 잘 풀이해주는 생불로 소문이 나면서 그를 추앙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특히 그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여성 제자들이 많았다. 묘향(妙香)이라는 제자는 처경의 외모를 “앞모습은 생불 같고 뒷모습은 왕자 같다”라고 흠모하였다. 준수한 외모와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지면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된 처경은 생불의 이미지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소현세자의 유복자’를 자처한 것이다. 그는 조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현세자의 조카이자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 복창군(福昌君)과 접촉하고 영의정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소현세자의 후사임을 내세우다가 관에 붙잡혀 처형되었다. 이처럼 처경은 생불로 추앙받았지만,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버려진 왕족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새로이 만들려다가 실패하여 요서(妖書)와 요언을 퍼뜨린 죄로 처형되었다.

생불 관련 유언비어는 숙종 17년(1691)에도 일어났다. 즉, 해주의 차충걸(車忠傑), 재령의 조이달(曹以達)과 그의 아내 애진(愛珍) 등이 “한양이 장차 다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정감록의 핵심 내용을 퍼뜨리면서, 제물을 갖춰 산에 들어가 하늘에 제사지냈다.⁷⁾ 이들은 또 “수양산(首陽山) 의상암(義相菴)에 정필석(鄭弼錫)이라는 생불이 살고 있는데, 이 자는 일곱 살에 입산 공부하여 생불이 되었으며,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천기(天機)에 항상 나타났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결국 생불 정필석을 맞이하기 위해 산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양인으로 무당이다. 무당들이 생불을 맞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불 정필석은 정감록에서의 정성진인(鄭姓真人)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6)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최종성, 「무당에게 제사 받은 생불 -요승 처경추안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0(2012) 참조.

7) 『숙종실록』 17년 11월 25일(을해).

열거나 얻을 자인 것이다. 조정에서는 정필석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색하였으나 그의 종적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정필석을 가공인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수색을 중지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실체가 없는 유언비어로 판단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이 유언비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임금을 범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국을 열어 관련자들을 역모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이처럼 숙종 때 생불을 내세워 민심을 끌었던 유언비어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이는 숙종 때 유언비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유언비어 사건은 생불 신앙과 정감록 사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영조 때부터는 생불 관련 사건보다는 정감록 관련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생불 신앙’에서 ‘정감록 사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무당이 생불을 맞이하려 한다거나 신당에 모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숙종 때에 미륵불을 내세운 유언비어도 주목을 끈다. 숙종 14년(1688)에 승려 여환(呂還) 등이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미륵불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신도들을 모았다. 특히 여환은 “이제 석가의 시대는 가고 미륵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므로, 비록 양반이라도 미륵이 세상을 비껴놓았다고 들으면 반드시 마음을 고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퍼뜨리며 사람을 모으고 서울 공격까지 추진하다가 실패하였다.⁸⁾ 이 과정에서 여환은 황해도에 유력한 무녀들을 끌어들였다. 특히 무녀 원향(元香)과 결혼하여 그를 ‘용녀부인(龍女夫人)’으로 내세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숙종 때에 미륵신앙과 생불신앙은 무녀들을 매개로 하여 민심을 끄는 강력한 코드로 작용하였다.

넷째, 『정감록』과 같은 도참 예언서의 내용을 토대로 외언이나 요언을 유포하는 경우이다. 『정감록』은 “이씨조선이 망하고 정씨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해도에서 정진인(鄭眞人)이 나와 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것이다”, 또는 “언제 어디에서 난리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어디어디로 피해야 안전하다”라는 따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도참서

8)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83), 44-78쪽 참조.

이자 비기이며, 예언서이다. 간략히 말하면, ‘이망정흥설(李亡鄭興說)’, ‘진인설(真人說)’, ‘해도설(海島說)’, ‘난리설(亂離說)’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에 정감록의 진인설과 해도설이 결합된 사례를 보겠다. 순조 26년(1826)에 이른바 ‘홍하도(紅霞島) 거병설’ 관련 유언비어 사건이 일어났다.⁹⁾ 정상채(鄭尙采)는 각지를 떠돌며 의술과 풍수로 생업을 삼았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마땅히 신도국(新都國)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해도(海島)에서 정씨(鄭氏)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퍼뜨렸다. 이를 진인설과 해도설로 보면, 군사를 기르는 해도는 ‘홍하도’이며, 군사를 이끌 정진인은 ‘정재룡(鄭在龍)’이고, 새 국가의 도읍은 ‘복주(福州)’, 즉 ‘안동(安東)’이다.¹⁰⁾ 정감록의 이른바 ‘해도기병설’과 완전하게 부합한다. 이 사건 또한 단순히 요언, 즉 유언비어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추국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정감록의 난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난리설’로, 이는 난리가 나면 어디어디로 피해야 한다는 이른바 ‘피장처’를 제시한다. 이를테면 영조 24년(1748)에 이지서(李之瑞) 일파가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온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곧 난리가 일어날 것이므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한 곳, 즉 피장처로는 “물도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으며 궁궁(弓弓)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궁궁처’는 넓은 곳이란 의미이며, 난리가 났을 때 회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뜻한다. 그러므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주체는 난리가 날 것을 전제하면서, 난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데서 대책을 찾고자 한 것이다.¹¹⁾

2. 유언비어와 궤서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수단으로는 단순히 ‘소문’을 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익명서(匿名書)’를 게시하고 그

9) 『순조실록』 26년 10월 27일(을해).

10) 고성훈, 「조선 후기 ‘해도기병설’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1997), 155-156쪽.

11) 고성훈, 「조선 후기 변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121-122쪽.

익명서를 본 사람들에게 의해 소문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흔히 ‘괘서’라고 한다. 괘서는 유언비어의 유력한 전파 수단이다.

조선 후기 괘서의 특징은 그 내용과 목적이 매우 정치적이란 데 있다. 그래서 괘서는 흔히 고위 관료, 특히 임금을 비방하거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익명서를 수거했을 때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흔히 ‘4자홍언’, ‘6자홍언’, ‘8자홍언’이니 하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매우 정치적 성향을 지닌 괘서의 목적은 주로 ‘거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있다. 그것은 추후 거행할 ‘거사’의 정당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주입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영조 4년(1728) 무신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괘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영조 3년(1727) 12월 12일에 전주 시장에서 괘서 사건이 일어났다. 전라감사는 익명서를 동봉하여 즉각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이 익명서를 불사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익명서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전의 괘서 사건을 예로 들면서, “흉악한 역적의 무리가 감히 임금을 모함하는 그릇된 말로 몰래 선동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¹²⁾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전주의 익명서도 영조를 비난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전주에서 괘서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남원 시장에서도 괘서 사건이 일어났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궁궐문과 함께 괘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였다.¹³⁾ 이때도 전라감사가 익명서를 밀봉하여 조정으로 보냈고, 영조는 즉각 불사르도록 하였다.

전주와 남원에서 잇따라 괘서 사건이 일어나더니 이듬해인 영조 4년(1728) 1월에는 서울에서도 괘서 사건이 일어났다. 1월 11일에 서부(西部)의 관원이 와서 서소문에 괘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현장에서 즉각 불사르도록 하였다.¹⁴⁾ 이때의 괘서 사건은 전주→남원→서울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에 의해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

이 일련의 괘서 사건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련의 괘서 행위는 무신란 주동자들이 군사를 일으키

12) 『영조실록』 3년 12월 16일(정유).

13)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연구』(국학자료원, 1997), 241쪽.

14) 『영조실록』 4년 1월 17일(무진).

기 전 조정으로부터 민심을 이반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대민 선전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통한 일종의 ‘여론몰이’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신란 때 거사를 앞두고 민심을 동요시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꾀서를 통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무신란 이후에도 이른바 ‘무신여당(戊申餘黨)’에 의해 꾀서가 줄을 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조 24년(1748) 충청도에서 꾀서 사건과 유언비어가 일어나 일대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 이해 4월에 청주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난리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이는 충청도는 물론 경기도까지 번져갔다. 문의에서는 유언비어와 함께 꾀서 사건이 일어나서 민심이 요동쳤다.

문의 고을 백성들이 내달 15일에 의당 魚肉이 될 것이다. 懷德도 그들의 당여이고 懷仁도 그들의 당여이며, 兵使도 그들의 당여이다.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오는데 물도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으며 弓弓이 이롭다. 이 고을에 대인과 명장이 있다. 여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¹⁵⁾

위의 인용문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곧 군사를 동원한 모반이 일어날 것이니 대피하라’는 경고이다. 충청감영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사건을 조사하였다. 이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충청과 경기 일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소동을 직접 보았다는 우규장(禹圭章)의 목격담을 통해서 유언비어가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월에 마침 문의 노곡에 갔었는데 보를 쌓던 역군들이 흩어져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취림이란 자가 말하길, ‘가지 마라. 문의에 지금 적의 진을 치고 있어 이렇게 흩어져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망령되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거쳐 문의 무릉정에 갔었는데, 이신이란 자의 집 앞산과 뒷산에 피란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내외 소나무골의 대여섯 촌락에 소요가 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영에서 저를 체포한 것은 제가 이 말을 전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 원통합니다.

15) 『推案及鞫案』 184책, 「戊辰罪人之曙推案」, 41쪽.

저는 박취림에게 들었지만 말의 뿌리는 열두 명을 거쳤습니다. 김경운에게 들으니, ‘문의와 옥천 사이에 왜군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서원을 중수하는 일과 전세곡을 나루로 옮기는 일을 모두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¹⁶⁾

이처럼 문의 일대는 유언비어와 괴서 사건으로 소동이 일었고 그 현장을 목격한 우규장이 그 소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규장이 들었다는 ‘적이 진을 치고 있다’거나 ‘왜군이 대대적으로 쳐들어 왔다’는 말은 유언비어이고, 그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보름 썰던 역군들이 달아났다’거나, ‘피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등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규장은 ‘왜군’이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침략 주체가 ‘왜인’이 아니라 ‘왜인 차림을 한 무리’라고 표현하였다. 이 사건 주역의 한 명인 오명후(吳命后)의 진술에 “사람들의 말에 흥흥한 것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왜인이 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은 왜인이 아니고 거짓으로 왜인 차림을 하여 오는데, 이들은 무신여당으로 섬에 있던 자들이다”¹⁷⁾라고 하였다. 오명후의 진술은 그 자체가 유언비어이긴 하지만 그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말해 왜인이 아닌 ‘왜인 차림의 무리’이고 이들은 다름 아닌 ‘무신여당’이라는 것이다. 섬에 머물고 있는 무신여당이 거사할 것이라는 논지이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신란에 연루되어 각지의 섬에 유배된 사실과도 부합한다.

영조 때는 괴서 사건만도 15차례 이상 발생했다.¹⁸⁾ 이처럼 괴서 사건이 자주 일어난 현상은 유언비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속종 때는 생불이나 미륵신앙 관련 사건 등 요언 형태의 유언비어가 주류였다면, 영조 때는 괴서를 통한 유언비어 사건이 주류였다. 이것은 영조 때 유언비어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언비어와 모반

조선 후기에 변란의 주체가 ‘거사’를 모의할 때는 대부분 유언비어

16) 『영조실록』 24년 5월 24일(정미).

17) 『영조실록』 24년 5월 23일(병오).

18) 이상배, 『조선 후기 정치와 괴서』(국학자료원, 1999), 112쪽.

유포를 통해 사전 여론 조성 작업을 한다. 유언비어는 그 성격상 '민심의 동요'를 수반하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유언비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곧 해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언비어의 속성상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모반의 주체는 '거사'를 모의할 때 곧잘 유언비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신란 때 '정도령(鄭都令)' 관련 유언비어가 유행했던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무신란 때 동조 인물을 포섭하기 위해 '정도령'의 이름을 자주 내세웠다. 이를테면 "정도령이 장수가 되어 팔도가 모두 호응하였다. 그대도 참여하라"¹⁹⁾라고 하거나, "너희들은 정도령 편에 서야 살 수 있다"²⁰⁾라는 식이다. 당시 민중에게 메시아적 인물로 각인되어 있던 정도령이라는 코드는 무신란의 주체에게 매력적인 이용 대상이었다. 이들은 민중의 감성을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정도령'을 통해 민심을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사실 무신란 발생 한두 달 전에 도성의 하층민 사이에서 정도령 출현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다. 이때 대마번(對馬藩)에서까지 왜관(倭館)을 통해 이 소문에 대한 실상과 진위 여부를 파악, 수집하고 있을 정도였다.²¹⁾

정조 6년(1781)에 일어난 모반 사건 때도 '거사' 계획을 세우고 동조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이용하였다. 정조 6년(1781)에 송덕상(宋德相)의 제자인 문인방(文仁邦)과 이경래(李京來) 등이 홍국영(洪國榮)과 송덕상의 실각을 계기로 '거사를 준비하였다.'²²⁾ 이들은 이경래를 도원수로, 도창국(都昌國)을 선봉장으로, 박서집(朴瑞集)을 운량관으로 삼았으며, 거사 성공 후 송덕상을 대선생(大先生)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간성 → 양양 → 강릉 → 원주 → 동대문으로 공격 루트를 정하여 거사를 준비해갔다. 문인방과 이경래 등은 거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조자 포섭에 많은 공을 들였다. 동조자 포섭은 주로 정감록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민심을 동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지를 전전하며 정감록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유포하여 동조자를 끌어들이는 '모인지계(募人之計)'를 폈다. 유포한 내용은 재판기록에

19) 『영조실록』 4년 4월 8일(무자).

20) 『영조실록』 4년 5월 10일(경신).

21) 김강일, 「조선 후기 倭館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110쪽.

22) 고성훈, 앞의 논문(1993), 135-155쪽 참조.

정감록의 '6자흉언(六字凶言)'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²³⁾ 이 '6자흉언'이 유언비어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매우 체제비판적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정감록 내용을 유언비어로 이용한 '모반 사건'의 정형이란 사실은 여기에서 '정감록' 이름이 구체적이면서도 최초로 등장한 데서도 알 수 있다.²⁴⁾

또 이 사건에서는 '소운릉(小雲陵)'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이는데, 정감록 유언비어의 또 다른 코드로서 주목된다. 사건의 주역 문인방은 동료들과 대화 속에서 '소운릉'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는 먼저 소운릉의 위치에 대해 '백두산 아래', '삼척의 해중', '남방 해도'라고 하였다.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소운릉'이 실존하는 섬인지도 의문이다. 소운릉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들이 말하는 소운릉은 곡식이 풍성한 비옥한 땅으로, 문인방은 이경래와 함께 소에다 술을 싣고 이곳에 들어갔다고 했다. 마치 정감록의 해도와 같은 일종의 이상향의 모습이다.

또 문인방은 소운릉을 군사적 거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박서집에게 말하길, "이경래와 더불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경래의 집 앞에서 배를 타고 함께 소운릉에 들어가라"²⁵⁾고 하였다. 또 문인방은 박서집에게 운량관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양식을 전장, 즉 소운릉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운릉은 식량 공급지 역할과 군사적 거점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 소운릉은 정감록의 이른바 '해도기병설'을 구체화한 장소이고, 진인 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한 곳이다. 다시 말해 정감록 사상의 최고 지향점인 이상사회 구현에 대한 논리가 '소운릉'의 형태로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소운릉은 민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언비어 형태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정조 9년(1785)에 '반정(反正)'을 내세워 거사를 모의한 사건이 일어났다. 홍국영의 사촌 홍복영(洪福榮), 사족 이율(李瑛), 중인 양형(梁衡), 천민 문양해(文洋海), 지사 주형채(朱炯采)와 오도하(吳道夏) 등은 유언비

23) 『정조실록』 6년 11월 20일(계축).

24)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영조 15년(1739)에 "서북지방에 '鄭鑑識緯之書'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영조실록』 15년 8월 6일 경진),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정감록'이라는 구체적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여기에서이다. 또 이 사건에서는 '諺書鄭鑑錄'이라는 이름도 나왔다.

25) 『推案及鞫案』 235책, 「壬寅逆賊仁邦京來等推案」, 168쪽.

어를 퍼뜨리며 민심을 동요시키고 거사를 모의하였다.²⁶⁾

홍복영의 문객이던 양형은 홍복영과 이울에게 ‘난리필기지설(亂離必起之說)’을 전파하면서 피란 대책을 세울 것을 권유하였다. 이들은 문양해 부자가 거주하던 하동을 피란지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하동을 근거지로 삼아 각지를 전전하며 동조자를 모았다. 이들이 주로 평안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주형채·오도하 등과 연계를 맺으면서 사건은 거사를 위한 안팎의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동요시켰다. 이윽테면 주형채는 “10만 병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거나, “거사 때 북도에서 도원수가 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동조자를 규합하였다.²⁷⁾ 지사 오도하도 이규운(李奎運)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사가 칭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동조자를 모았다.

문양해와 양형도 그들이 전파하는 여러 거사 관련 내용이 정감록의 진인의 말임을 강조하였다. 이 일은 주로 문양해가 이른바 ‘지리산 이인(異人)들’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양형이 서울과 하동을 오가면서 유언비어를 전파하였다.

특히 문양해는 ‘지리산 이인들’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리산 이인들’은 지리산의 ‘선원(仙苑)’에 은거하면서 문양해를 통해 정감록 사상 등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배후 조종하였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핵심은 ‘동국삼분지설(東國三分之說)’이다. 그 내용은 “조선의 천문지리가 모두 삼분의 조짐이 있다. 임자년(1792)에 도적이 창궐하고 그 후 마땅히 삼분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²⁸⁾라고 하였다.

또 거사 조직에 대해서는 하삼도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서로 연계하여 거병하는 이른바 ‘삼도거병지설(三道擧兵之說)’을 주장하였다. 병력은 4만 명에 달하며, 도원수에 통천 유가(通川劉哥), 홍충도 대장에 한수채(韓壽採), 전라도 대장에 이인형(李寅瑩), 경상도 대장에 고경현(高擎顯)을 추대하기로 하였다.²⁹⁾ 서울에서는 이울과 친분이 있는 조영소(趙榮素)

26) 고성훈, 앞의 논문(1993), 155-172쪽 참조.

27) 『정조실록』 9년 3월 22일(신미).

28) 『정조실록』 9년 3월 1일(경술).

29) 『정조실록』 9년 3월 8일(정사).

등이 내응하기로 했고, 주형채를 중심으로 북도에까지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다. 거사 날짜는 홍충도는 정조 9년(1785) 3월 15일, 전라도는 같은 해 4월 28일, 경상도는 같은 해 5월 그믐날로 정하였다.

이러한 거사 시나리오는 문양해 등이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지리산 이인들' 가운데 향약(香嶽) 김정(金鼎)의 말을 빌려 진술한 것이다. 그 시나리오에는 거사 지휘부에 홍복영·이율·양형·문양해 등 사건 핵심들이 다 배제된 채 전혀 별개의 인물들이 들어 있다. 또 사건 핵심 인물들과 거사 지휘부의 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문양해 등이 지속적으로 정감록 사상을 유포하여 민심을 모으고 거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문양해나 양형의 주도로 정감록 사상을 각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리산 이인들'은 선인(仙人) 또는 신인(神人)으로도 불렸다. 이들 중에서 직접 문양해를 통해 사건을 배후 조종한 이는 김정이다. '동국삼분설'과 '난리설', 그리고 거사 조직과 날짜 등이 모두 김정이 문양해를 통해 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인들'은 나이가 수백 살이라는 등의 비상식적 진술로 보아, 이들을 실존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찾기 위해 지리산 일대를 뒤졌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³⁰⁾ '이인들'은 일종의 결사체를 이룬 거사(居士) 집단의 미화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별호에 성거사(成居士), 백운거사(白雲居士), 청오거사(靑鳥居士)와 같이 '거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당시에 하동 지역이 거사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³¹⁾ 아울러 지리산 '선원의 존재는 앞의 문인방 사건 때의 '소운룡'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의미, 즉 정감록 사상의 이상사회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의도가 담긴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4. 인물 관련 유언비어

유언비어는 흔히 '반정부'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순간부터 정치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는 '반정부'의

30) 『정조실록』 9년 3월 23일(임신).

31) 『정조실록』 10년 2월 22일(병신).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유언비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특정 인물이란 주로 정치 상황과 관련 있는 자들이다.

무신란에 연루되었다가 도망친 황진기(黃鎭紀)의 예를 들어보자. 황진기는 평안병사로 무신란에 가담했다가 발을 뺀 이사성(李思晟)의 부하로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무장이다. 조정에서는 황진기를 무신란 연루자로 체포하려 했고, 그는 도피하다가 청나라에 망명했다고 알려졌다. 조정에서는 황진기가 한어(漢語)에 능통하고 청나라와의 무역에도 밝은 점을 고려할 때 청나라로 건너갔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정에서는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체포하지 못한 역적 가운데 황진기가 가장 걱정이 되는 자라고 하면서, 청 사신에게 황진기 체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³²⁾

영조 9년(1733)에 황진기가 그의 지인들과 만났다는 말이 퍼져 관련자에 대한 친국이 열렸다.³³⁾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는 승복을 입고 머리 깎은 승려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또 지식이 있는 수원에 들렀다고도 하였다. 여러 명의 진술에도 황진기의 행적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영조 21년(1745) 무신여당 이색(李穡)과 권두령(權斗齡) 등이 모반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친국을 받았다. 이때 이색의 진술에 따르면, 황진기는 칠보사(七寶寺)의 중이 되었다가 모반하여 승군을 조직하였고 압록강을 건너 북변을 활거하려 했다고 한다.³⁴⁾ 또 다른 진술에 따르면, 황진기는 지금 환속해서 무산에 산다고 하였다.³⁵⁾ 이에 조정에서는 육진 일대의 지리에 익숙한 오위장 이양중(李陽重)에게 황진기를 붙잡도록 하명하였다. 이양중은 국경지대에서 황진기의 일을 탐문했으나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³⁶⁾

황진기의 행방과 생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영조 24년(1748)에 충청도 일대에서 일어난 유언비어와 궤서 사건 때 황진기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나왔다. 이 사건의 주역인 이지서(李之曙)는 “울릉도 건너편에 황진기 등 무신여당이 있다. 또 그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나올 것이다”³⁷⁾라는

32) 『비변사등록』, 영조 5년 5월 26일.

33) 『영조실록』 9년 5월 21일(신축).

34) 『영조실록』 21년 10월 8일(병오).

35) 『영조실록』 21년 11월 3일(경오).

36) 『영조실록』 21년 11월 14일(신해).

말을 퍼뜨렸다. 이지서는 황진기에 대한 말을 한 이유에 대해, 황진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여겨서 한 말이고, 울릉도 결의 섬이라는 말은 자기가 인심을 혼란시키기 위해 한 말이라고 자백하였다. 무신란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황진기 관련 유언비어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민중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황진기는 생사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의 수배와 민간에서의 그에 대한 유언비어로 인해 무신여당의 대표 인물이 되었다.

이번의 예는 명백하게 죽은 자에 대한 유언비어다. 순조 11년(1811)의 ‘홍경래(洪景來)의 난’ 관련 건이다. 홍경래의 난 실패로 홍경래와 우군칙(禹君則)·이희저(李禧著)·김사용(金士用) 등 주역들이 대거 죽거나 처형되었다. 그런데 홍경래의 난이 종결되고 난 후에도 그 주역들이 살아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순조 17년(1817)에 행상 채수영(蔡壽永)이 안유겸(安有謙)과 함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³⁸⁾ 이들은 전라감영 → 충청감영 → 서울로 공격로를 설정하고 입성한 후에 여러 신하들을 죽이고 강화죄인을 모셔와 큰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퍼뜨렸다. 또 일이 실패할 경우 제주도에 들어가 대마도에 청병하겠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황해도에서 배가 내려온다고 하거나, 홍경래가 살아 있다는 따위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홍경래가 살아 있어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른바 ‘홍경래 불사설’이 퍼진 것이다.

순조 26년(1826)에 김치규(金致奎)와 이창곤(李昌坤) 등이 정감록의 해도기병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³⁹⁾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홍경래·이희저가 서쪽에서 제주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나, “홍경래·우군칙이 제주에서 취회한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홍경래 불사설’이 ‘제주난리설’과 결합되어 이른바 ‘남방기병설’의 형태로 퍼지고 있었다. 이처럼 홍경래의 난 이후 십수 년이 지나도록 그 주역들이 살아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던 것은 그들에 대한 민중의 기대감과 봉기 실패에 따른 아쉬움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7) 『영조실록』 24년 5월 23일(병오).

38) 『순조실록』 17년 3월 16일(기미).

39) 『순조실록』 26년 5월 3일(갑신).

III. 조정의 민심 수습책과 유언비어의 정치·사회적 기능

1. 조정의 대응

유언비어는 대부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조정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이를테면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외적이 침입한다’라는 형태로 유언비어가 유포되기 때문에 그 일대 사람들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난을 피하려고 미리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말 한마디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을 몰고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비어 유포 그 자체로도 극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요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서(妖書)나 요언(妖言)을 지어내거나 퍼뜨려서 백성을 미혹시킨 자는 참수한다”⁴⁰⁾라는 『대명률(大明律)』의 법조문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괘서에 대한 처리 방법은 조금 다르다. 괘서는 국왕을 범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국왕의 체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괘서를 발견하면 불태운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다. 국왕이 괘서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인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괘서는 곧바로 ‘모반과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괘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였다. 괘서 자체보다는 모반과 연결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영조 31년(1755)의 이른바 나주 괘서 사건 때는 수사에 보다 적극적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괘서 관련자들 면면이 드러났고,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역모’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⁴¹⁾

‘역모’는 그 준비나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유언비어’를 수반한다. ‘거사’를 위해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그 과정에서 동조자를 모으기 위해서이다. 거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즉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유언비어 유포자는 거사 모의 주모자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듯이 ‘역모’는 대역부도의 죄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친국을 거치며 주모자는 ‘능지처사’ 형에 처한다. 앞의 정조 때 문인방·이경래

40) 『大明律』 권18, 刑律, ‘造妖書妖言’條.

41) 이상배, 앞의 책, 132-156쪽 참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주모자 문인방·이경래·백천식이 능지처사되고 문인방의 출신지인 곡산부(谷山府)는 곡산현(谷山縣)으로 강등되었다.⁴²⁾ 그리고 사건이 종결된 후 국왕은 신하로부터 역적 토벌에 대한 축하를 받는 한편, 위무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에 사면령을 내리기도 한다.⁴³⁾

다음으로 정감록 관련 유언비에 대한 조정의 대처 방안 검토이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 사건에서 정감록은 민중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감록이 유언비를 만들어내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조정에서는 정감록 사상에 기인해 변란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에 내재해 있는 정감록 사상을 근절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시 말해, 조정의 대응은 변란의 유형, 즉 유언비어, 궤서나 흉서, 거사 모의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정감록 사상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유언비를 포함한 변란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대응은 신하들이 정감록을 금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건의하고, 이에 국왕이 교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조 9년(1733) 전라도 남원을 중심으로 정감록에 기초한 유언비어와 궤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조정에서 이른바 ‘잡술(雜術)’을 금지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윤순(尹淳)은 호남에 잡술이 성행하게 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개 호남에는 신승 義相과 道誥이 났기 때문에 남방에 그의 방서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은 풍수로 전하고 혹은 推命으로 전하며 혹은 相術로 전해져 지난번 宋河의 무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도가 더욱 흑신하기 때문에 太眞과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⁴⁴⁾

이처럼 윤순은 ‘잡술이 성행하게 된 연유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파되는 갈래 및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아뢰었다. 물론 여기에서 ‘잡술’이란 곧 정감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잡술은 술수라고도 하며, 천문, 지리, 명과(命課), 관상, 선술(仙術), 차력(借力) 등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다.⁴⁵⁾

42) 『정조실록』 6년 11월 22일(을묘).

43) 『정조실록』 7년 1월 15일(정미).

44) 『영조실록』 9년 8월 26일(갑술).

45) 장영민, 「유랑지식인과 사회변혁운동」, 『정신문화연구』 제20권 4호(통권 69호)(1997),

그러나 여기에서 잡술은 정감록을 포함한 비기도참의 예언류와 점술서 따위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어서 윤순은 전라도 관찰사가 도내의 잡술에 관한 여러 방서를 전부 거두어 금지시킨다면 저절로 종식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여⁴⁶⁾, ‘잡술’을 금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영조는 ‘참위’를 금지하는 교서를 내렸다.⁴⁷⁾

이 같은 영조의 하교는 사람들이 쉽게 유언비어에 휩싸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학(正學), 즉 성리학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영조 때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신란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무신란 때 정세운(鄭世胤)이나 정팔용(鄭八龍)같이 주모자급 인물들이 정도령을 자처하면서 민심을 모았고 송하(宋賀) 같은 자는 정감록을 퍼뜨리며 인심을 동요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조 때의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에 대한 조정의 대응도 정감록 사상을 차단하고 사건 주모자는 처형하는 등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정조 때는 처리 과정에서 그전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정조 9년(1785) 흥복영문양해 등에 의한 지리산 일대 거사모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사건 관련 지역의 관찰사 등으로 하여금 정감록 사상을 차단하고 민심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료들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국왕은 사건의 조기 수습으로 민심을 안정시키려 하였다.⁴⁸⁾ 또 정조 10년(1786) 함경도에서 발생한 ‘거사배 거사모의 사건’ 처리 때도 국왕의 생각이 ‘진정시키는 데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같은 맥락이다.⁴⁹⁾

정조는 당시 유언비어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침을 “흉악한 무리들이 거짓말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민심을 선동시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사건의 단서가 드러난 후에 보통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마하여 흉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맥이 풀리게 하고 계책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⁵⁰⁾”라고 하였다. 유언비어의 처리는 그 원인이 되는

39쪽.

46) 『영조실록』 9년 8월 26일(갑술).

47) 『영조실록』 9년 10월 18일(병인).

48) 『정조실록』 9년 3월 23일(임신).

49) 『정조실록』 10년 2월 11일(을유).

50) 『정조실록』 9년 3월 26일(을해).

정감록 사상을 백성들로부터 차단시키는 데 둔 것이다.

영조와 정조가 정감록 관련 유언비에 대응하는 기본 인식은 주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 대책은 성리학의 지배 논리를 강화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이른바 '위정척사'에 초점이 모아졌다.

2. 유언비의 정치·사회적 기능

1) 유포 주체

조선 후기 유언비는 체제 저항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유언비어 유포 주체가 체제 저항 인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뜻과도 같다. 이때의 유언비어 유포 주체는 정치권력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어 오랫동안 여기에 재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이다. 이른바 '몰락 양반'이다. 이들은 흔히 '한유(寒儒)'나 '빈사(貧士)'라고도 한다.⁵¹⁾ 물론 숙종 때 미륵불이나 생불 관련 유언비가 발생했을 때 그 주역은 승려와 무당이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발생 빈도나 시기의 지속 정도를 고려했을 때는 이들을 조선 후기 유언비어 유포의 주류로 보기는 어렵다.

한유·빈사는 성리학의 소양을 갖춘 양반이 주류이지만, 이들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거의 몰락한 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훈장이나 지사(地師), 의원(醫員) 등을 생업으로 삼아 정치권력에 몸담고 있는 자들의 문객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민중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에서 후자는 현실 정치의 모순을 비판하고 민중의 처지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민중과 만난다는 점에서 '유랑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⁵²⁾ 또 '지식'을 바탕으로 지배체제 또는 사회모순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저항 지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⁵³⁾ 이들이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가

51) 배향섭,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18·19세기의 농민항쟁-』(역사비평사, 1992), 261쪽.

52) 유랑지식인에 대해서는 정순우, 「조선 후기 유랑지식인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정신문화연구』 제20권 4호(통권 69호)(1997) 및 장영민, 앞의 논문 참조.

53)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민에 대한 인사정책과 도민의 정치적 동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228쪽.

된 것이다. 여기에는 신분이 중인에 속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천민도 저항 지식인으로서 유언비어나 괴서를 통해 대민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민중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때문에 쉽게 민중의 처지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고, 이들이 유포한 유언비어는 빠르게 민중에 전파되었다. 이들은 영조 때 이후 저항 지식인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한유와 빈사는 성리학을 기본 지식으로 삼아 풍수나 참위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정감록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이론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감록을 적극 이용하여 민심을 끌려고 하였다.

영조 때 이른바 ‘무신여당’ 중 일부도 저항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영조 24년(1748)에 청주와 문의 일대에서의 유언비어 사건은 이지서가 주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이항연(李恒延), 양반인 오수만(吳滲萬)과 그의 아들 오명후(吳命后), 장의(掌議) 박민추(朴敏樞) 등이 적극 참여하였다. 이지서는 무신여당이다. 그의 사촌 이지시(李之時)는 무신란 때 이인좌(李麟佐)와 함께 활동하다가 처형되었고, 육촌인 이지경(李之璟)과 삼촌 이민춘(李萬春)도 무신란에 가담했다.⁵⁴⁾ 이로 말미암아 이지서는 향촌 사회에서 역당 집안으로 몰렸고, 그의 신분은 양반이지만 이미 사회·경제적으로는 거의 몰락하였다. 박민추는 장의로서 향촌사회의 유지였으나 그의 사촌과 처남이 무신란에 가담했다가 도망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무신여당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

오수만의 경제력은 알 수 없으나, 그가 좌수를 지낸 걸로 보아 향촌에서는 비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매우 현실 비판적이며 진보적이었다. 오명후는 이항연에게 “그대는 양반의 권세에 의지하지 마라. 의당 귀한 자가 천하게 되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수만도 양반의 교만한 기세를 부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⁵⁵⁾ 오수만 부자는 신분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이미 변란 주체 중 평민으로 가담한 자들 중에는 “우리도 평민으로 남아 있을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어찌 왕후장상의 종자가 있겠는가?”⁵⁶⁾

54) 『영조실록』 24년 5월 21일(갑진).

55) 『推案及鞫案』 권21, 184책, 「戊辰罪人之曙推案」, 46-47쪽.

56) 『推案及鞫案』 권19, 165책, 「癸丑元八推案」, 471-472쪽.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평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 다른 변란의 주체는 “이후의 세계는 귀천이 없어지게 되니, 우리들이 하향한 후에 마땅히 사업을 일으키면, 가히 시조(始祖)가 될 수 있다⁵⁷⁾”라고 하였다. 이는 비현실적 주장으로 보기는 하지만, 평등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도 주장하였다. 앞의 영조 24년(1748)의 과서 사건 때 이지서는 변란의 목적을 “첫째는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인심을 동요시켜 피란하게 되면 부자들의 곡식을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⁵⁸⁾”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에서’라고 한 것은 다수의 변란 주모자들의 생각과 같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원국지심(怨國之心)’이나 ‘낙화사란지심(樂禍思亂之心)’의 무리라고 한 것이다. ‘부자들의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아직 정제된 논리는 아니지만 신분평등에 이어 경제평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순조 때의 사례를 더 보기로 하겠다. 순조 4년(1804)에 훈장 출신으로 무과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한 경험이 있는 이달우(李達宇)는 황해도 장연 일대에서 “고백령(古白翎)과 울릉도에서 병기를 만들고 군량을 모아둔다” 따위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변란을 추진하였다.⁵⁹⁾ 이 과정에서 그는 현실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변혁할 방도를 세웠다. 그는 당시 현실을 가리켜 “근래 민생이 더욱 어렵고 인심이 흉흉하여, 부자는 겸병의 이익을 취하는데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고 흑 빛으로 거지가 되기도 하며 심하면 도둑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두 제산(制産)을 잘못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달우는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의 토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주나라에서 井田法을 시행하여 훌륭한 치적을 이루었고, 당나라에서는 均田制를 시행하여 빛나는 교화를 이뤘다. 이제 대략 이 제도를

57) 『승정원일기』 1577책, 정조 9년 2월 29일.

58) 『영조실록』 24년 5월 25일(무신).

59)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이상배, 『한국 중·근세 정치사』(경인문화사, 2003), 151-171쪽 참조.

본받아 매호에 田 70負를 지급하고 그곳에서 집을 지어 농사를 짓게 한다면, 4, 5명이 사는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할 것이다.⁶⁰⁾

이러한 이달우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가 이러한 토지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변란 주체가 지닌 의식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란의 주체 중에는 ‘반정(反正)’을 전면에 내걸고 거사를 모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의 정조 9년 홍복영·문양해 등의 지리산 일대 역모 사건 때 문양해는 역모의 목적에 대한 진술에서 양형의 말을 인용해 “시세가 장차 쇠퇴할 운명에 이를 것이니, 만일 인재가 있으면 마땅히 난을 다스리고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⁶¹⁾라고 하였다. 이처럼 ‘발란반정(撥亂反正)’의 주장을 통한 거사 명분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한편 정조 6년(1782)에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려 인심을 동요시키고 동조자를 모아서 서울을 공격하려 했던 거사모 사건의 주역인 문인방은 천민 출신이다. 문인방은 천민이면서도 이조판서를 지낸 송덕상의 제자로서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 유포를 주도하고, ‘훈장’ 노릇을 하면서 동조자를 모으는 등 거사를 주동하였다.

순조 19년(1819)에 화성에서 궤서사건을 일으킨 김재묵(金在默)은 관노(官奴)였다. 위원(渭原)에 유배 중이던 김재묵은 유배지를 벗어나 화성에서 생원(生員)을 가칭하면서 동조자를 모았다. 그는 해도에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의 군사에 대해 “김노신(金魯信)을 도원수로 삼고 장수가 80명이며 군사가 10만 명이다” 따위의 내용으로 화성에 궤서하였다. 그는 본래 남평(南平)의 관노로서 유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배지를 벗어나 아무 제약 없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민심을 선동하고 궤서 사건까지 일으켰다.⁶²⁾ 당시 사회상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조정에서는 이들 저항 지식인을 항상 ‘불령’한 생각을 하면서 ‘역모’를

60) 『推案及鞫案』 권26, 「甲子罪人達宇義綱等推案」, 597쪽.

61) 『승정원일기』 1577책, 정조 9년 2월 29일.

62) 고성훈, 「1819년 華城 掛書 사건의 추이와 성격」, 『수원문화사연구』 2(수원문화원, 1998) 참조.

도모하는 ‘위험 인물군’으로 보았다. 그리고 실제 이들 중에는 이른바 ‘사란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사란지심’은 때로는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의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정치·사회적 기능

유언비어는 주로 현 지배층에 적대적이고, 체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의 주체인 저항 지식인들은 민중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그들의 여론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그때의 여론은 체제에 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조선 후기 유언비어는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였다.

정감록은 그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저항 지식인들은 정감록의 논리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민중의 여론을 선동하였다. 저항 지식인들이 정감록처럼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유언비어의 형태로 민중에게 유포하는 것은 지배층과 민중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유언비어의 주체인 저항 지식인들이 ‘사회 혼란의 주역, ‘반체제’의 상징이 되어감에 따라 조정으로서는 이들을 ‘사란지심’을 품고 있는 불령한 무리로 경계하였다.

저항 지식인들에 의한 유언비어에 ‘난리’나 ‘외적 침입’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다보니 민중도 위기를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때의 유언비어가 지배층에게는 득이 없음에 비해 민중에게는 혼란과 공포심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현실에 억눌린 민중의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하면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는 ‘새 왕조나 ‘이상향’에 대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잠시나마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소운릉’이나 ‘지리산 선원(仙苑)’, ‘홍하도’ 등은 나름대로 이상향에 대한 민중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감록을 통한 유언비어는 민중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 황진기나 홍경래와 같은 체제 저항의 상징적 인물들, 다시 말하면 민중의 가슴 속에 ‘영웅’으로 남아 있던 이들이 ‘살아 있다’는 유언비어는 민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황진기가 울릉도 건너편에 있다’라고 하거나, ‘홍경래가 죽지 않고 제주도로 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민중은 안도감과 기대감을 함께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숙종 때는 민중에게 미륵불과 생불 신앙이 주류로 자리하였으나, 영조 때 들어와 정감록과 같은 도참예언 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영조 때는 도참서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고, 정조 때는 최초로 '정감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정감록은 빠르게 대중화되었고, 민중의 대표적 사상체계 내지는 신앙으로까지 자리를 잡아갔다.

영조 때는 궤서 유형의 유언비어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궤서는 와언이나 요언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거행되었다. 다시 말해 궤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사 모의'를 염두에 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영조 때 궤서 사건이 자주 일어난 것은 무신란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무신란 이후 조정에서는 와언·요언이나 궤서 사건이 일어나면 으레 '무신여당'의 행위로 여겼다. 사실 정치적으로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은 '무신여당'은 영조 때의 많은 변란 사건의 주체로 등장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양산되었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가 '진인설'과 '해도설' 등의 정감록 내용을 이용해 대민 선동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감록 내용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끄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정감록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주체의 변혁적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의식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조선 후기에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의 큰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언비어가 속출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대 전란을 겪으면서 체제 변화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는 일종의 '저항'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이때의 유언비어 유형은 주로 와언·요언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괘서도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흔히 와언이나 요언, 그리고 괘서는 다음 단계의 저항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졌다. 이를테면 ‘거사’, 즉 ‘모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는 대민 선전선동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란’을 주제로 한 유언비어가 자주 유포되었다. ‘전란’의 소재를 와언이나 요언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추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틀은 ‘정감록’이었다. 정감록은 왕조교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이상향에 대한 민중의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또 전란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는 정감록을 통해 민심을 끌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한편 숙종 때는 미륵불이나 생불을 내세운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이 과정에서 무당이 미륵불이나 생불을 민중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민중이 몰리기도 하였다. 영조 때는 무신란 전후로 괘서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또 무신란 후에는 이른바 ‘무신여당’이 유언비어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와언과 요언뿐만 아니라 주로 괘서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고, 곧잘 거사 모의 단계까지 나가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는 유언비어 등 변란이 발생했을 때 그 주체를 ‘무신여당’으로 지목하였다. 그중에서도 무신여당 황진기는 조정의 수배 대상 제1호였다. 정조 때는 최초로 ‘정감록’ 이름을 내건 유언비어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정감록은 빠르게 민간에 퍼졌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는 몰락 양반, 즉 한유·빈사였다. 이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활기반을 거의 상실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의 소양 위에도 정감록과 같은 비기도참 사상이나 잡술에도 해박하였다. 이들은 주로 각지를 떠돌며 훈장, 지관, 의원 등으로 생업을 삼았다. 그 과정에서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 등으로 민중의 여론을 선도하면서 점차 저항 지식인이 되어갔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원국지심’이나 ‘낙화사란지심’을 가진 자들이라 하여 경계하였다.

조정에서는 유언비어에 대하여 “요서와 요언을 퍼뜨린 자는 처형한다”라는 『대명률』의 법조문을 시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정의 기본 시각은 유언비어의 주 기반인 정감록 사상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유언비어 주체인

한유·빈사의 ‘사란(思亂)’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유언비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이고 실제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폐해를 남겼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유언비어는 민중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에는 새 왕조나 이상향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것은 민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 가운데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변화와 변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반정을 주장함으로써 새 정치를 지향하려 했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개혁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를 포함한 변란 주체의 변혁적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의식이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참 고 문 헌

『大明律』.

『備邊司謄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正祖實錄』.

『推案及鞫案』.

김강일, 「조선 후기 왜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고성훈, 「조선 후기 변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_____, 「조선 후기 ‘해도기병설’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 조선시대사학회, 1997.

_____, 「1819년 화성 패서 사건의 추이와 성격」.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1998.

배향섭,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2.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농민에 대한 인사정책과 도민의 정치적 동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상배, 『조선 후기 정치와 패서』. 국학자료원, 1999.

_____, 『한국 중·근세 정치사』. 경인문화사, 2003.

장영민, 「유랑지식인과 사회변혁운동」. 『정신문화연구』 제20권 4호(통권 69호), 1997.

정석중, 『조선 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1983.

정순우, 「조선 후기 유랑지식인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정신문화연구』 제20권 4호(통권 69호), 1997.

최종성, 「무당에게 제사 받은 생불 -요승처경추안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0, 역사민속학회, 2012.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일지사, 1985.

조선 후기 유언비어는 일종의 '저항'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와언(訛言)·요언(妖言)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괘서(掛書)도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또 '거사(擧事) 모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는 대민 선동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란'을 주제로 한 유언비어가 자주 유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틀은 '정감록(鄭鑑錄)'이었다. 정감록은 진인(真人)의 출현에 의한 왕조교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이상향에 대한 민중의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또 여기에는 나름대로 전란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는 정감록을 통해 민심을 얻고자 하였다.

영조 때 무신란(戊申亂)은 조선 후기 유언비어 사건을 포함한 변란의 정형이다. 무신란 후에는 이른바 '무신여당(戊申餘黨)'이 유언비어를 주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는 유언비어 등 변란이 발생했을 때 그 주체를 '무신여당'으로 지목하였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는 몰락양반, 즉 한유(寒儒)·빈사(貧士)였다. 이들은 나름대로 성리학의 소양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활 기반을 거의 잃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소양에다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에 해박하였다. 이들은 각지를 떠돌며 훈장, 지관, 의원 등으로 생업을 삼으면서,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 등으로 민중의 여론을 선도하였다.

조정에서의 유언비어 사건에 대한 기본 시각은 정감록 사상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료들은 정감록 따위를 금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국왕에 이에 대해 성리학에 힘쓸 것을 하고하였다.

유언비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이고, 실제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폐해를 남겼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유언비어는 민중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 가운데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변화와 변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반정을 통하여 새 정치를 지향하려 했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경제

개혁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 유언비어를 포함한 변란 주체의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의식이 성장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투고일 2012. 11. 5.

수정일 2012. 11. 15.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유언비어(Rumors), 와언(訛言, Misinformation), 괘서(掛書, Posting seditious letters in the public marketplace or on gates), 변란(Political revolt), 무신란(the Musin Rebellion of 1728), 무신여당(the Musin remnants), 정감록[the Record of Jeonggam(a book of prognostications)]

